

# 환경변화와 생태관광의 시장성: Case Study

- Environmental Changes and Marketability of Ecotourism -

최 병 길\*  
(Choi, Byoung-Kil)

## 목 차

- I. 서론
- II. 생태관광의 경제적 의의와 경제적 접근
- III. 생태관광지 추진 사례: 예래동
- IV. 생태관광의 시장성
- V. 결론

## I. 서론

현대사회의 특색인 산업 및 기술발전은 국민소득의 증대로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관광을 가져왔다. 대중관광의 특성인 대량수요, 대규모적 공급, 지나치게 강조된 규모의 경제적 이익 추구 등이 결국 관광지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관광자원으로서의 환경의 중요성과 관광이 관광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관광지의 자연 및 사회·문화환경에 많은 훼손을 가져왔던 기존의 관광개발과는 다른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관광지의 환경(자연, 사회, 문화)을 최대한 보전하고 동시에 관광객에게는 관광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형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태로는 '생태관광, 녹색관광, 책임 있는 관광, 토속관광' 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Archer, 1996). 대량관광의 대안관광으로 새롭게 등장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모든 관광지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중관광을 추구하는 관광의 욕구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관광의 욕구와는 분명히 구별(Mackay, 1995)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관광이 기존의 대중관광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광지의 발전이 바로 관광지를 쇠퇴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정책적 타협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지의 이용과 보존, 경제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관광지 주민의 요구는 양측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대립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결국 이해 당사자의 조정이 요구되는 선에서 타협점이 이루어지는 많은 의사결정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가운데 생태관광이 자연과 사회·문화적 자산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관광이 관광지 지역주민에게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관광지에 인접된 지역주민에게 관광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틈새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은 관광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시대를 반영하는 다양한 관광욕구가 예상되고 이에 대응되는 관광상품의 등장을 예상할 수가 있다. 특히 서비스 중심의 관광상품은 정보가 관광의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관광상품과는 상이한 시장성을 갖고 있는 생태관광의 경우 마케팅 측면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은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는 예래동 생태마을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에 나타난 상황분석과,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른 시장변화 등 대규모 관광단지 인근 지역에 기존의 관광상품과는 차별화된 틈새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찾아보는데 있다.

예래동은 중문관광단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생태관광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 II. 생태관광의 의의와 경제적 접근

### 2.1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관광은 관광지에 소득, 고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관광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경제적인 혜택보다는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관광이 관광지에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문제로 생태계 파괴와 자연환경 오염, 지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악영향, 이익분배의 왜곡과 지역경제의 빈곤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Bryden, 1973; Pearce, 1980; Cooper and Pigram, 1984). 기존의 관광개발 방식보다는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가능성의 전개를 통해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변화의 총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Daly, 1990). 그리고 그것은 물리적 규모에서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성장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수익·소득·고용 등의 경제적 역동성을 사회문화적·생태적 통찰력 및 세대내 또는 세대간 형평성을 통합하는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Opschoor and Straaten, 1993). 세계관광기구(WTO, 1996)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미래세대가 가질 수 있는 관광의 기회를 보호하면서 현재의 관광객과 방문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발"을 일컫는다고 되어있다. 즉 환경보전과 관광을 조정하면 관광은 환경과 경제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고, 관광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상호 문화적 이해를 돕고, 관광객에게는 높은 수준의 만족과 개발이익은 투자자와 지역사회에 공평히 환원시켜 개발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문화적 통합성과 생물학적 다양성 및 생명지원체계(Life Support System)를 유지하는 형태로 모든 자원을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관광의 지속가능성은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은 관광지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목표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를 관광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즉 관광의 영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광의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없을 뿐더러 관광과 같은 단일 산업내에서 이를 적

용하여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Stabler, 1997; Clarke, 1997; Wall, 1997) 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경우도 있다(Burtler 1998; Miline, 1998).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해도 앞으로 관광이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 가능성은 마땅히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Miline, 1998; Burtler, 1998)고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가운데 생태관광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경우가 많다(Weaver, 1991).

생태관광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균형, 상호의존관계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합당한 대안을 마련하여 자연자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데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생태관광의 목적과 활동은 자연경관이나 문화자원 등을 관찰, 체험함으로써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 활동에는 대상지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야생동식물을 즐길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자연 또는 현지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과의 일체감을 경험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된다(강신겸, 1998). 일반적으로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자연환경의 원시상태를 가급적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이 자연환경 그 자체를 관광, 휴양 및 교육의 대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즉, 자연공원, 생태보전지역, 산림지, 도서 등의 자연환경과 이 공간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지, 그리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 및 산업적 자원 등의 인문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성공적으로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접근시설, 편의시설, 그리고 이용프로그램들을 갖추어야 관광상품으로 연계가 가능한 것이다(유기준, 1998). 결과적으로 생태관광의 기본 목적에 따라 올바른 계획과 추진을 바탕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대상지역에 자원의 보전, 경제적 활성화와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관광객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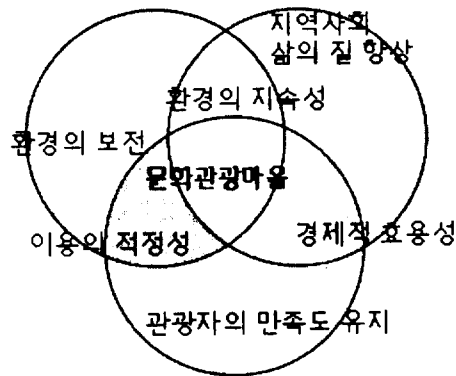
생태관광을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별로 주민과 생태계의 관점에서 분류하면(박석희, 1998) 주민과 생태계 양자 이익을 가져다주는 win-win ecotourism, 주민에게는 이익을 생태계에는 불이익을 가져주는 win-lose ecotourism이 있다. 그리고 생태계불이익 생태관광개발은 lose-win ecotourism, 주민과 생태계 양자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lose-lose ecotourism으로 구분된다. 이상적으로는 생태관광의 개발이 win-win 전략

이 되어야 하나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경우 win-win 전략에서 생태관광개발이 시작되나 그 결과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시작은 생태관광개발에서 출발하나 장기적으로 기본 개념이 무시되는 과정에서 상업주의가 강조된다면 결과적으로 대량관광 위주의 기존의 관광개발 방식과 차이가 없게 된다.

## 2.2 생태관광의 경제적 해석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나 생태관광의 개념을 적용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여러 제약 조건하에서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결국 이해당사자간의 타협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생태관광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관광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추구하는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의사결정의 참여자가 다수를 이룬다는 점일 것이다. <그림1>은 문화관광마을을 통해 지역 사회 삶의 질 향상, 관광자의 만족도 유지, 환경의 보존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의 지속성, 이용의 적정성,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제약조건이 수반되어 있다. 세가지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에 가치 중심을 두게 되면 그 만큼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균형된 상태에서의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림 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적용한 문화관광마을의 개념



주) 김남조, “지방화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전략”, [www.this.co/spr/](http://www.this.co/spr/)

관광개발의 주체 즉 관광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림1>의 세가지 목표 가운데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것이다. 환경의 보존이나 관광자의 만족도 유지는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관광지를 개발하는 목적은 관광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적 측면에서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지역개발 차원에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관광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기존의 대중관광의 대안관광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지속가능한 관광 역시 관광을 통해 지역에 경제적 편익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생태관광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의미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관광지에 관광의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개발 형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의 지역주민은 물론 다음 세대에서 구성되는 지역주민 그리고 그 다음세대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해석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관심이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에 있다면 주어진 조건하에서 자원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이용될 수 있게 하거나 어떠한 제한을 두어 제한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 가운데 어려운 점은 바로 비용과 편익 분석에 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용과 편익은 추정이 가능하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은 화폐적 단위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가 개발을 논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재무적 관점에서의 편익 비용분석은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은 다음세대까지 고려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접근된다는 점에서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Archer, 1996).

이론적 그리고 개념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분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Prest and Turvey, 1965; Layard, 1972; Little and Mirrless, 1969) 관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측정결과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점등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생태관광을 포함한 대안관광이 기존의 대량관광과 다른 점은 바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고 동시에 대안관광을 통해 제시되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의 생명주기가 다음 세대까지 연장시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이 접근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대안관광의 경제적 접근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관광지역 주민이 그 대상이며, 시간적으로는 단기적이 아닌 다음세대까지 포함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의미는 대상지역주민들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고려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 2.3 생태관광과 관광시장구조의 변화

대량관광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대안관광의 시장규모는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규모가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Archer, 1996). 규모가 작다는 의미는 공급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윤을 찾기가 힘들고 수요측면에서는 제공되는 대안관광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행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섬지역과 같이 협소한 지역에서는 재방문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Archer, 1996).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작은 규모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경우의 대안관광은 결국 마케팅상에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비교적 비싼 여행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서 대상 자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을 모집하기는 일반 대중관광 대상의 마케팅보다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2005년까지 현재 추세대로 발전하는 경우 대안관광 가운데 생태관광은 그 규모가 현재의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The ecotourism Society, 1991).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거시적 환경지표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즉 관광산업은 20세기 후반기에 세계경제에서 매우 높은 성장을 이룩했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매우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아시아의 관광산업은 전세계 평균 이상의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과(Eadington and Redman, 1991),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정보기술의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다양한 관광상품의 등장과 관광욕구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경제발전

에 따른 환경의 질 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면서 환경을 주제로 하는 관광상품의 등장이 대안관광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관광상품의 개발측면에서 외부적으로는 외부세계와의 연결 즉 유통과 마케팅 측면에서 정보기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여러 개의 단일 상품들이 묶여야 하나의 관광상품을 구성하게 되는 복합상품으로서의 특성과, 관광객은 관광지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광상품은 정보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정보기술은 관광산업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관광시장은 더욱 세분화되어지리라 예상된다. 각각의 잠재고객은 동시에 여러 다른 시장에 속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욕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러한 상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개개인의 선호도가 고려되면서 상품의 구성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보다 유연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대량의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내놓게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장분할이 더욱 세분화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통적으로 관광의 주체와 객체사이를 연결해 왔던 여행대리인의 역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는 바로 www나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거의 무한정으로 뿌려지고 있는 관광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은 www에서 가장 많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며, 인터넷은 비교적 진입이 용이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를 네트워크로 묶어놓고 있다(Werthner and Klein, 1999).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규모의 경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정보기술이 가져다주는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다양성"에 있다.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차 단축되면서 우리의 소비시장은 더욱 빠르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정보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과 사회적 다양성은 기존의 대중관광과 비교할 때 작은 규모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대안관광 특히 생태관광의 발전 가능성을 밝게 해주는 요소이다.



### Ⅲ. 생태관광지 추진 사례: 예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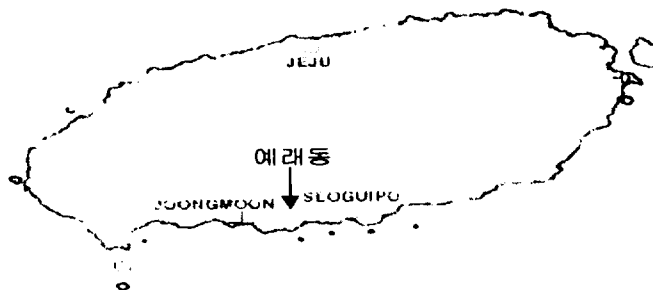
#### 3.1 마을의 현황<sup>1)</sup>

예래동은 동쪽으로 서귀포시까지 17km, 서쪽으로 남제주군 안덕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37km<sup>2</sup>, 행정구역은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을 포함한 지역으로 서귀포시 전체면적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적 환경으로는 북쪽으로 한라산의 산악지역에서부터 남쪽의 바닷가를 경계로 하고 있다.

전체 인구는 2000년 5월 기준 3,726명(남 1,878, 여 1,848)으로 1,118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9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 수입원은 감귤농사이다. 이 밖에 지역 내에 위치한 중문관광단지의 종사자와 어업인구가 나머지 5%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는 중문관광단지를 제외하고는 민박(36동)이 전부이며 호텔기숙사가 위치해 있다.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로는 '97년에 조성된 색달동 쓰레기매립장(27,000m<sup>2</sup>)이 2007년까지 사용가능하고, 일일 15,000m<sup>3</sup>를 처리할 수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다. 이 밖에 95년에 조성된 공설공원묘지도 자리잡고 있다. 예래동은 지역내에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설 정도로 제주도내에서도 경치가 좋은 곳으로 산과 바다 그리고 바다로 이어지는 하천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2> 예래동의 위치



1) 이 부분은 예래환경연구회에서 발간된 “예래환경연구회보” 및 “활동자료 및 신문자료” 그리고 워크샵에 실린 내용들을 재구성한 것임.

따라서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생태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당케연대, 별로천 연대, 열녀비, 전신당, 포제단, 바위그늘 집자리, 고인돌, 돌도끼, 동굴유적, 토기 등 선사시대의 문화유적과 봉화대,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장소 등이 여러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예래마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는 중앙정부 주도의 거점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곳으로 경관이 좋은 해안지대를 따라 대단위 숙박시설, 식물원, 골프장 등이 계획적으로 세워졌고 현재는 대규모 국제회의센터를 건설 중에 있다. 대단위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객 및 관광시설물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는 바로 인근에 위치한 예래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골프장, 광역소각로, 공설묘지 등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 3.2 추진현황 및 분석

예래동의 생태마을 조성은 예래환경연구회와 같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환경연구회를 구성하여 매월 주제발표를 갖고, 전문가를 초빙 지역주민들 대상의 Workshop을 실시함으로써 구성원간의 의견교환, 환경, 생태, 생태마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왔고 환경에 대한 감시, 조사, 견학, 관련기관과의 간담회개최 그리고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왔다.

또한 년2회 발간되는 '예래환경연구회보'는 이들의 활동상황, 지역의 현안문제, 그리고 지역내의 자연적, 역사적 자원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왔다. 이런 활동은 지역주민에게는 자기고장에 대한 자긍심 및 관심을 높일 수가 있었으며 외부사람들에게도 예래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예래동의 생태마을 조성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으며, 2000년 5월에 실시한 Workshop에 제시된 프로그램에 의하면 2시간 소요의 문화유적지 답사, 해안선 트래킹, 그리고 협오시설 답사 중심으로 해발 580m에서 출발하여 해안선까지 자전거를 이용한 다운힐 등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예래환경연구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 예래 관광 마을은(강민수, 1999) ①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요소에 적용하면서 자연자원을 생산해내는 산업을 바탕으로 하여 생태적인 건전한 취락 구조를 유지·개발하고, ② 마을에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와 취락구조를 개선할 때에 친환경적 방식을 유도하여 환경

적으로 모범이 되는 공동체를 창출하고, ③ 중장기적으로 생태, 문화, 예술이 조화된 공동체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④ 이 밖에 중문관광단지 와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자연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여 환경농업과 관련된 관광문화를 구축하는 것 등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들이 추구하는 마을이란 개발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면서 개발의 방향이 친환경적 이고 지속가능하여야 하며 한적한 농촌 마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주민 주체의 개발 방식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잃지 않는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문관광단지 개발은 지역주민과 많은 마찰을 야기시켰고 주민협오시설의 도입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은 강한 반발을 보여주었다<sup>2)</sup>.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주민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지하수, 해양, 대기, 토양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등에 관한 것을 연구·조사·홍보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예래환경연구회보 참고). 예래동 생태마을의 대상 지역은 관광객이 버스를 이용하여 지나치는 지역으로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인접 지역의 팽창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원치 않는 환경의 부산물만 그들 몫이 된 곳이다. 대중관광에 따른 대규모 관광개발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전체의 경제적 혜택만 염두에 두었을 뿐 개발혜택의 공정한 분배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관광지의 발전단계에 따라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감-무관심-짜증-적대감의 단계를 보인다고 하였다(Doxey, 1976).

지역주민이 관광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나 관광에 대한 태도가 관광지 발전단계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Burtler, 1980; Getz 1983; Keller, 1987). 관광의 개발목적이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과 고용효과를 가져오는데 있으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

즉 지속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개발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2) 참고자료: 예래동환경연구회, 1999, 활동자료 및 신문자료 모음, 제2권.

것을 말해주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소한 공정성이 유지되는 개발원칙은 모든 관광지에 적용되어야 한다. 예래동 주민은 1970년대부터 30년 동안 주변관광지의 발전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적대감의 단계를 벗어나 스스로 대안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분배의 논리보다는 환경보전이 라는 논리의 전개를 통해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마을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 IV. 생태관광의 시장성

### 4.1 제주관광의 환경변화

제주관광은 1990년대 들면서 전체 관광객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 증가율은 1980년대와 비교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수입은 '85년 이후 '93년까지 연평균 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IMF기간을 제외한 최근 2년간의 관광수입증가율은 4.7%로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정체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관광을 휴양지주기모델(The resort cycle model)<sup>3)</sup>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객수의 증가가 'S'자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관광객이 100만을 돌파한 1983년 이전까지를 도입기(Invovment or Introduction), 88올림픽 이후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400만을 돌파한 1996년까지를 성장기(development or growth)라고 할 때 96년 이후 제주관광은 성숙기(Stagnation or Maturity)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최병길, 2000).

제주관광의 변화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느 특정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이 시작되면 도입기에서 성장 발전 단계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 최종적으로는 침체기(Decline)를 맞이하게 된다.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제주관광 또한 언젠가는 침체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을 제품의 생산적 개념에서 볼 때 상품으로서의 생명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나 기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일

3) The resort cycle은 'S'자 모양으로 경제·경영분야의 총생산물곡선, 제품생명주기 등의 이론에서 인용된 것으로서 resort의 발전 단계는 Burtler(1980)에 의해 최초로 적용되었다.

마나 적절히 대처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마련이다. 성숙기를 맞이한 제주관광의 경우 관광자원의 특성이 자연자원 위주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관광객 가운데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sup>4)</sup>이 매우 높아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해외여행의 선호와 '98년부터 시작된 북한 관광지 개방, 그리고 특색이 없는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때 침체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최병길, 2000).

제주도 관광객 통계는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집계되고 있으며, 관광객은 일반단체, 신혼여행객, 수학여행 그리고 기타로 분류되고 있다. 1987년도 통계에 의하면 일반단체 28%, 수학여행 6%, 신혼여행 14% 그리고 기타관광객이 52%의 분포를 보였으나, 1997년도는 일반단체 19%, 수학여행 12%, 신혼여행 9%, 그리고 기타 관광객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관광객은 절대 숫자로서 86년 84만명에서 97년도 247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은 그 동안 자연자원 감상위주에서 서서히 탈피하여 휴양목적, 회의 참석, 각종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타 관광객의 증가에서 보여 주듯이 관광패턴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상품들이 등장하리라 예상된다.

## 4.2 환경변화와 예래동 생태관광의 시장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관광의 가능성은 생태관광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 제주도는 섬 전체가 관광지이며 이미 국내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잘 알려진 관광지이다. 예래동의 생태관광지는 기존의 많은 제주관광자원 가운데 새로운 관광자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새롭다는 의미는 기존의 제주관광자원의 특색과는 구별되는 점이며, 새로운 각도에서 관광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관광개발의 측면에서 개발의 동기, 주체 및 투자 그리고 운영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앞에서 언급된 대안관광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협소한 규모의 시장성에 대한 문제는 예래동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나 예래동이 대규모 관광지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도가 이미 알려진 관광지이기 때문에 생태관광 대상지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접근 비용 또

4) 1997년도 제주관광객은 4,363,000명으로 이 가운데 내국인은 4,143,000명, 외국인은 185,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

한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제주관광상품과 더불어 혼합형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틈새관광상품으로서의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다. 틈새관광상품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최근의 정보화 사회의 다양성에 있다. 대중관광 이후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변화와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관광상품이 등장하는 가운데 예래동의 생태관광은 규모가 작은 다양한 상품가운데 하나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화 사회의 인터넷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소규모의 관광상품에 대한 직접 마케팅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제주관광의 환경변화,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그리고 예래동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 등은 앞으로 예래동 생태관광지의 가능성을 밝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내부적인 측면에서 예래동은 생태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본다. 성공적인 생태관광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바라보는 참여자들의 인식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예래동의 경우 관광개발에 따른 비용부담 반발과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인 환경단체 NGO 구성원들로부터 생태관광마을이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진 환경보호운동, 환경교육, 마을사랑 운동을 통해 자기 고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고, 지역사회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그 성공가능성을 밝게 해주는 요인이다. 생태관광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 지역사회 중심형 관광개발이 성공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역주민이 그 주체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어떻게 한정하는가 하는 문제나 관광의 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셈이다.

예래동은 자원적인 측면에서 생태관광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환경적 소재를 이용한 산악, 농촌, 어촌체험 그리고 역사 및 문화 체험형 관광이나 쓰레기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을 이용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생태올림픽을 표방한 시드니올림픽, 서울의 난지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원으로 바꾸려는 전남 난지도 등도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혐오시설을 이용하여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관광은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자연 및 인문·사회적인 차이가 존재할 때 관광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며 제주도 전체 환경이

육지와 다르다는 점이 관광지가 된 이유이다. 관광지 입장에서는 지역고유의 지방성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은 관광의 생존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차별화된 이미지,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개발은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방화시대에 관광지에서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예래동의 생태관광은 기존의 제주관광 자원과 분명히 차별화된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래동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육지와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도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가 어렵다. 또한 인근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마을로 조성된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도 그냥 지나치는 장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생태관광의 상품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어려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관광은 개발시점에서부터 개발 후 관광지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선택의 문제이다. 관광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특성과 그 파급효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참여자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관광마을의 구성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해집단간의 타협이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즉 참여자를 한정시키는 일,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개발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품화 할 것인가? 관광객 편의 시설물 및 서비스수준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광수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관광환경의 보존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개발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정수용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등의 많은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때 성공적인 생태관광지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 V. 결 론

기존의 대중관광이 관광의 경제적 영향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라면 대안 관광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개발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공간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다음세대까지 고려한 폭 넓게 적용된 개념이다. 관광개발에서 개발이득과 환경비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본 원칙이 모든 관광지에 적용된다면 지역주민과 환경에 모두 이득을 가져다주는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래동이 추구하는 생태관광마을은 개발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 기존 관광지의 주변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대규모 관광지내에 조성되기 때문에 대안관광이 가지고 있는 협소한 시장규모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제주관광의 환경변화와 환경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증대 그리고 정보기술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공가능성을 살펴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래동의 생태관광은 기존의 관광객이 추구하는 관광욕구와 차별화가 가능하고, 더욱이 앞으로 관광객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라 중개업자의 역할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 가운데 틈새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관광 마을을 조성하는데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구체적인 설명 가운데 '정부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환경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환경보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정부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래동의 경우는 환경오염시설이 지역 내에 세워짐에 따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관광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역내의 모든 주민은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래동의 생태마을은 기존 정부중심의 Top-down 개발방식과는 다른 지역주민중심의 bottom-up 개발방식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한 틀 속에서 이런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래동의 경우 간접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정부, 전문가 그리고 생태마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예래동의 생태마을은 기존의 대규모 관광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개발이익의 공평한 분배 문제, 개발의 주체 및 개발혜택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 관광의 지속성과 관광지 발전단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태도 변화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규모 관광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참 고 자 료

- 강민수, 1999, “예래 관광 마을을 위한 제언”, 예래환경연구회보, 제 8호,
- 강신겸, 1998, “생태관광 시설 및 활동 프로그램”, 환경과 조경, 9월호.
- 김남조, 2000, “지방화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전략”, www.this.co/spr.
- 박석희, 1998, “생태관광의 필요성과 유형”, 환경과 조경, 9월호.
- 예래환경연구회, 1999, 2000, 예래환경연구회보, 제 7, 8, 9호.
- 예래동환경연구회, 1999, “활동자료 및 신문모음”, 제 2권.
- 예래환경연구회 및 녹색평화도시 서귀포21 협의회, 2000, “예래생태관광마을”을 위한 워크샵.
- 유기준, 1998, “국내 생태관광의 현황과 바람직한 접근 방향”, 환경과 조경, 9월호,
- 제주도관광협회, 관광자료, 각년도
- 최병길, 2000, “제주관광의 정체성 변화”, 산경논집,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제14집
- Archer, Brian, (1996) “Sustainable Tourism: An Economist’s View, Quoted in Sustainable Tourism in Islands and Small States, Edited by Lino Briguglio, Brian Archer, Jafar Jafari and Geoffrey Wall.
- Bryden, J .A.(1973), Tourism and Development: A case study of commonwealth Caribbe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tler, R. W. (1998), Sustainable Tourism- looking backwards in order to progress? In Hall, C. M., and Alan A. Lew, eds., Sustainable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 Clarke, J., (1997), A Framework of Approaches to Sustainable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5(3), Quoted in Burtler, R.(1998), Sustainable Tourism - looking backward in order to progress? In Hall, C. M., and Alan A. Lew, eds., Sustainable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 Cooper, M. J. and Pigram, J. J. (1984), "Tourism and the Austrian Economy," *Tourism Management*, 5(1).
- Daly, H., 1990, "Toward Some Operational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cological Economics*, 2(1).
- Doxey, G. V. "When Enough's Enough: The Natives Are Restless in Old Niagara," *Heritage Canada*, Vol. 2, 1976, pp. 26-27.
- Eadington, W., and M. Redman (1991), "Economics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41-56.
- Getz, D.(1983), Capacity to Absorb Tourism: Concepts and Implications for Strategic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10(2).
- Keller, C. P.(1987), "Stages of peripheral tourism development: Canada's northwest territories," *Tourism Management*, 8(1).
- Layard, R. (1972) *Cost Benefit Analysis*. Harmondsworth: Penguin.
- Little, I. M. D. and Mirrless, J. (1969) *Manual of Industrial Project Analysis in Developing Countries (Vol. 2): Social Cost-Benefit Analysis*, Paris: OECD.
- Mackay, Mary-Jo, (1995) "Gauging the impacts of Opportunity: An Analysis of Sustainable Ecotourism in Cape Breton Native Communities", *Proceedings of the Cape Breton in transition conference*, Oct. 20-21.
- Miline, S. S.(1998), *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xploring the global-local nexus* in Hall, C. M., and Alan A. Lew. eds., *Sustainable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 Norris, R., Wilber, S. and Marin, "Community-Based Ecotourism in the Maya Forest" Available from Amazon.com website.
- Opschoor, H., and Van der Straaten, J. (1993), "Sustainable Development: An Institutional Approach," *Ecological Economics*, 2.

- Pearce, J. A. (1980), "Host Community Acceptance of Foreign Touris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7(2)
- Prest, A. R. and Turvey, R. (1965) "Cost-benefit Analysis: a survey", *Economic Journal*, 75(300):683-735.
- Stabler, M. J. ed(1997), *Tourism and Sustainability, Principle to Practice*, CAB International, Wallingford, Quoted in Burtler, R(1998), *Sustainable tourism -looking backward in order to progress?* In Hall, C. M., and Alan A. Lew, eds., *Sustainable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 Sproule, Keith W., "Community -Based Ecotourism Development: Identifying Partners in the Process,"  
The ecotourism society, 1991
- The World Bank Participation Sourcebook, "Designing Community-Based Development", Appendix II: Working Paper Summaries. WW
- WTO(1986), *Agenda21 for the Travel & Tourism Industry: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Madrid, WTO.
- Weaver, David B. 1991, "Alternations to Mass Tourism in Dominica,"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8. No. 13.
- Wall (1997), *Sustainable Tourism - Unsustainable Development*. In Pigram, J. J., and S. Wahab, eds., *Tourism, Development and Growth - 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 Routledge, London.
- Werthner, Hannes and Klein, Stefan, (1999), *Information Technology and Tourism - A Challenging Relationship*, Springer-Verlag Wien New York.